朝鮮日報
夕刊
二十七日(土)
本紙朝夕刊十二面

淺間丸事件回答到着

英、自國側見解固執

獨逸人引渡를拒否

今日、有田外相、英大使와會談

【東京電話同盟】淺間丸事件에關한 帝國政府의 嚴重抗議에 對하여 英政府는 事態의 重大性을 漸次認識하여 帝國의 國民感情을 尊重하는 一面 自國의 法理的見解를 貫徹할수잇는 方策에關하여 百方考慮하고잇던바 이즘 對日回答案作成을 마추어 二十七日午前十時 有田回答案을在京크레기大使에게 打電해왓다 따라서 크레기大使는 곳 有田外相에게 會見을求하여 午後二時外相官邸에서 重要會見을 行하엿다 그러데 同會見席上 크레기大使로부터 有田外相에게 手交한 英政府의回答骨子는 英本國側의 情報와對照하여보매

一、淺間丸問題에關하여는 帝國의 威信을 害할意思가업섯슴을 表明하고 帝國의 國民感情을 激發한데 遺憾의 意思를 表明하고

一、第二、第三의 淺間丸事件의 勃發을防遏키爲하여 將來의 對策에關하여 日英間에 協議를行할 意思가잇는等 諸點일것으로보이는데 이에對하여 有田外相은

一、抑留獨逸人의 引渡에關하여는 自國의 法理的見解에 基하여 이를 拒否하며

一、獨逸人의 抑留는 英國의 不法强力行爲의 所産이다 帝國은 이 不法行爲에 激發되엇다 淺間丸事件과 抑留獨逸人引渡와는 不可分의 關係가잇스므로 此際英國政府도 深甚한 政治的考慮에 基하여 抑留獨逸人을 引渡하여 淺間丸事件이 준不幸한印象을此際엽새게하는것이 英國으로서 得策이라고 생각한다

一、將來의 保障에對하여는 帝國으로서도 歐洲戰爭不介入의 立場을堅持하기爲하여 交戰國人의 本邦船乘船에對하여는 充分히考慮中이다 이點에對하여 英國政府의協力을 要望하는바이다라고 答하여 이에 應酬할것으로보여 抑留獨逸人의 引渡와 將來의 保障問題를圍繞하고 日英間의折衝은 아직今後繼續되는것으로보인다 (寫眞은 有田外相과、크레기英大使)

忠北警察部長 上野氏로內定

總督府人事異動은 今月末又는 來月初에 發令될豫定인데 平北警察部長으로 榮轉하는 忠北警察部長 本多武夫氏의 後任에는 光州地方法院檢事局 上野武雄氏를 拔擢하기로內定되엇다

官吏制度改革問題

白紙還元은必至!

【東京電話同盟】政府는 前內閣時代의 懸案인 貿易省設置問題及官吏制度改革案의 取扱에關하여 二十六日閣議에서 먼저貿易省問題에關한 檢討를한 結果이는 中止하기로 決定하고 官吏制度에 關하여는 二十七日閣議에서 檢討를 進行시키기로되엇다 그리고 同問題는 最近歷代內閣이 그必要를 認定하면서도 마츠내 實現치못하고 더욱이阿部內閣에서는 組閣當初의 政綱中에 이를闡明하고 具體案을考究한結果 官吏身分保障令의 撤廢를 企하여 어디까지든지 이를實現시키려고 하엿스나 實現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今日에까지 이른것으로 政府로서는 旣往의 經過에 비추어 極히 愼重한 態度로써 臨할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二十七日의 閣議에서는 從來의 經過를 基礎로 忌憚업는 意見交換을 할려는것인데 貿易省設置中止의 理由에도잇는바 와가치 不必要한摩擦을일으키는것은 此際極力으로避할方針인 模樣이므로 官吏制度問題도 白紙로 還元하여 今後의硏究題目으로 하기로하고 結末을지을것으로보인다

精動再出發檢討

【東京電話同盟】政府는 二十六日閣議에서 戰時經濟政策의 根本方策을 決定하엿스므로 드디어 懸案인 國民精神總動員中央聯盟의 機構改革問題及 精動運動의 指導方法等에 對하여再檢討를하기로되엇는데 右精動機構의 改組及運動方針에 關하여는 일직부터 聯盟側에서 硏究하여오든데 이지음腹案도 어뎃스므로 精動側에서는 二十七日 午前九時半부터 首相官邸에政府側으로부터 米內首相以下 兒玉內相 小磯拓相 木村法相 吉田厚相 櫻內藏相、松野鐵相、島田農相及精動委員長、松浦文相、聯盟側으로부터 有馬會長以下 頭聚事務長、岡部、古野各理事、小松幹事等이 出席하여 聯盟側의 右腹案을中心으로 여러가지意見交換을하고 十時半散會하엿다

政友久原派役員補充

【東京電話同盟】政務官就任에따르는 政友久原派의 役員補充은 二十六日의 總務會에서 久原總裁로부터 左와如히 任命되엇다

本部總務 服部岩吉
同 小谷節夫
常議員會長 板野友造
常務部長 綾部健太郎
會計監督 立川平
庶務部長 田中好

그리고 議會報告書起草委員도左와如히指名되엇다

委員長 植原悅二郎
委員 豐川正藏 東條貞 三善信房 世耕弘一

兩陛下御慰問

滿洲國大使館災厄에

【東京電話同盟】至殿하옵신 兩陛下께옵서는 駐日滿洲國大使館邸의 火災를 드르옵시고 恐懼하옵게도 御軫念하옵섯다고 拜承하는데 大使館國中에 災厄을맛난 夫人家族의 身上을 御軫念하사 天皇皇后兩陛下께옵서는 二十七日 御慰勞로 菓子를 御下賜하옵신外에 料理等도 下賜하사 懇曲히 御慰問하옵섯다 그리고 宮內省에서는 水野外事課長이 午前十時三十分 大使館을 訪問하엿다

施政方針演說骨子

廿九日閣議서正式決定

【東京電話同盟】米內首相이 再開議會劈頭에 할 施政方針演說의 草稿는 二十六日以來 內閣三長官이 調整中이엇섯는데 二十五日夜脫稿하엿스므로 二十六日夜定例閣議에 上程하고米內首相以下各閣僚가이에 對하여 各各愼重檢討하엿다 그리고 若干字句修正의 必要도 잇스므로同日은 決定치안코 二十七日閣議에서 다시 檢討하여、二十九日閣議에서 正式決定을 한後 上奏裁可를 奉仰하기로되엇다 그리고 施政方針演說의 骨子는極히 簡潔하여 內容도 다음과가치 重點主義를 取한것인데 그러나 國民의 深甚한自覺에期待하려는方針을取한것으로보인다

一、事變處理 支那事變處理의方針은 旣定의 不動國策이 現存하므로 이를 踏襲하는것은勿論 事變處理方策의 第一段階로 近近樹立될 新中央政府의 成立發展에對하여 積極的 支援을하여야할것은 또한 말할必要도업다

一、對第三國方針 第三國에關한 國交調整의 方針 더욱이 事變處理에關聯한 第三國外交方針은 어디까지든지 我自主的態度를 嚴守한다

一、國內對策 戰時國民生活의安定을第一義로하여低物價政策의完遂를期한다

朝鮮의食糧政策

節米運動强化、雜穀自給이緊要

總督府當局談發表

總督府에서는 二十七日 食糧對策에 對하여 아래와가튼 當局談을 發表하엿다

昨夏來 食糧事情에 關하여는 總督府에서 時宜에對應하여 施策한바잇섯고 特히 先般發表한것가치 內外의 需給關係를斟酌하여 朝鮮全道를 通하여 必要한 數量의正租를 미리確保하는等 諸般施策의 具體化를圖謀하여왓는데 各道에서도 總督府의 劃策에 順應하여 特別한努力을하여 民衆의自覺을 喚起하여써 緊迫한食糧事情의 緩和와 民心의不安狀態를 芟除하기에努力하는等 조흔實績을 거두게된것은 同慶에不堪하는바이다

總督府에서는 朝鮮의 今年食糧事情을 緩和시키기爲하여 內地及 滿洲로부터 相當多量의雜穀을 輸移入하도록 計畫하여왓스나 現在로보아서는 반드시豫期한것과가튼 輸移入을보지못한實狀이므로 今後도 此等 輸移入雜穀만에 依存하고 晏然할수는업는바이다

그러데今年은 各道의 特別한 努力에依하여 裏作麥作付反別도相當히 激增하엿슬뿐만아니라 그收穫期도 벌써 二三個月後로近迫하여잇는바이므로 目前에 切迫된春窮期를 超克할수잇는것이目下의 緊要事이다 그러므로此際도內官民一心同體가되어 食糧充實運動을 一大國民運動化시켜單純한 形式的表面的인 運動에 그치지말고 大略다음과가튼 참으로堅實하고 實行性잇는 具體的方策實現에 힘쓰기를切望하여 마지안는바이다

一、節米運動의强化

節米運動에對하여는 現在에도消費의節減、混食、代用食의勵奬等 相當히實行하고잇스나 그中에는 抽象的 精神運動에흐르는 實效性이적은感이 업지도안흐므로 爾今은 地方實情에應하여節約의目標、混食의比率等을定하여 米穀의販賣에잇서서는 반드시雜穀을添付하는等 卽時實行할可能性이잇는 具體的方法에依하여 一般的으로 그實行을꾀하고또는代用食日을設定하여 趣旨의徹底를期하는等 節米運動을 一大國民運動에까지 昂揚시킬 方針이므로 民衆各位도 이實現에對하여 特別한 協力을 하여주엇스면조켓다

二、餘剩米의買上

輸移出及朝鮮內需給調節을爲해正租買上에對하여는 曩者第一次分을發表하엿는데 다시將來第二次第三次의買上도 豫想되는바이나 各道에서도 自道內의需給關係를考慮하여 米穀所有者에 對하여 强制貯藏을命하고 또는 [illegible] 買付를實行할것이 豫想되므로 生産者나米穀業者는 잘 當局의施策을理解하여 어대까지든지 配給計畫에 積極的으로協力하여 주엇스면조켓다

三、雜穀의買上

內地及滿洲國으로부터의 雜穀輸移入에對하여는 總督府로서도 極力努力中이나 事情이 前述한바와가트므로 各道에서도 徒然히 이에만 依存하고 잇지말고 自道產雜穀의 適當圓滑을 圖謀하여 자치하면 米穀의 一方的消費에 빠지기쉬운 傾向을 打開하도록 努力하는것이 必要한것으로 必要에應하여는 米穀에 準하여 雜穀의 買上을實施하게될는지도 모르므로 이러한境遇에는 前項과가치 官民의協力을 바라는바이다

四、生産者及米穀業者의協力

地主、精米業者等에 對하여는 從來도 米穀出荷의 促進에 對하여는 關係者의 協力을 促한바가잇섯는데 實際는 아직도買占、賣惜等의 不德行爲를 하는者가잇서 米穀의圓滑을 阻害하고 나아가서는 人心에 惡影響을미치게 하는者가 만혼것은 實로遺憾이다 그러므로 關係者도 잘이러한事態를 認識하여 米穀及雜穀의 自發的供出運動으로써 協力하고 또는當局으로부터의 調査가 잇슬때는 숨김업시 實情을具陳하여서 當局의 配給計畫樹立에 支障이업도록하기를 切望하여마지안는바이다 萬若 自發的 協力을 엇지못하는 境遇에는 當局으로서도 從來公布된 朝鮮米穀配給調整令에 基한 强制出荷命令을 發動시켜 配給에 遺憾이업게하지 안흐면 안될지도모르는바이므로 關係者의 自發的協力을바라는바이다

五、粗惡한白米販賣의禁壓

現在의 米穀事情을 奇貨로하여 極히粗惡하고 또는小石、正租等의 混入이만흔 白米를七分搗 또는五分搗라고하여 市販에 供出하고 또는 數量을속이는等 其他여러가지 名目下에不當한利得을꾀하는 奸商의類가적지안흔것은 實로時局을 害毒하는것으로 今後는이러한者에 對하여는 嚴重히 取締할 方針이므로 違反者에 對하여는 嚴罰로써 臨할方針이어니와 一般業者도 十分留意하여 一般消費者의 苦痛을생각하여 惡德的行爲의 絶滅을 期하도록 自戒하기를 바라는바이다

米、石炭의國家管理

必需品傳票制考慮

政府의低物價政策遂行方策

【東京電話同盟】政府는 二十六日閣議에서 低物價政策遂行上焦急히 考慮할事項으로서 國家管理 保險 年金制度 傳票制度 强制貯蓄 物價調整 資金制度와 物資配給機構整備를 列擧하고엇는데 右에關한 政府의具體的方針을 表示하면 大要如左하다

一、國家管理 重要産業에對한 生産配給은消費의 國家管理를 意味하는것인데 于先 研究의對象이되는것은 米及 石炭이다 但米에關하여는 專賣制度實施 意見도잇다

一、保險及年金制度 資金吸收 購買力吸收의 新方策으로서 現行保險及年金制度外에 새로別種制度를 設置하여 貯蓄의 增加를爲할

一、傳票制度 米、醬油、된장、砂糖、木炭等 重要生活必需品에 關하여傳票制度의 可否를 硏究하는데그 實施에 關하여는 獨逸의傳票制度實施와가치 愼重한 準備를한後決定할

一、强制貯蓄 國家總動員法 第六條、第十一條等의 發動에 依하여 俸給賃銀等에 關하여 强制貯蓄을하려는것이나 一面 이때문에 現在의 自治的貯蓄에 比하여 效果가 적을 念慮가 잇는點도잇고 또中小商工業者等에關하여는 法的으로 强制할方法이업는것등 考慮할點도만타

一、物價對策資金制度 生活必需品의 物價騰貴를抑制하기爲하여 必要한境遇로부터 助成金을 交付하려는것으로 一定額을 豫算에 計上해두려는것이다 이를實施하기爲하여는 特別會計를 設置할必要가잇서 同時特別會計法案을 議會에提案케될것이다 例컨대 燐寸低物價維持를 爲하여 그助成金交付가 必要한境遇에는 右會計로부터 支出하게하는것이 適當하다는것이다

一、物資配給機構 整備하기爲하여는 무엇보다도 闇取引絶滅이 肝要하다 그를爲하여는 먼저 同業組合으로하여곰 그自治的協力에依하여 統制를行하는同時에 이와併行하여 政府로서도 經濟警察强化에依하여 統制를꾀함

敎學局長發令

【東京電話同盟】
正四位勳三等 菊池豐三郞
任敎學局長官(一等)
敎學局長官 小林光政
依願免本官

006381

週間戰況

錢塘江渡河作戰爲始 各地敵軍을擊破

支那派遣軍報道部發表

【南京二十六日發同盟】支那派遣軍報道部에서는 一月十九日以降二十六日까지의 週間戰況을 다음과가치 發表하엿다

支那派遣軍報道部 一月二十六日發表

一月十九日以降 今日까지의支那事變戰況은 다음과갓다

一般戰況

敵의冬期攻勢는 壓報한바와가치 全支에互하여 거의潰滅에 瀕하게되엇는데 敵의 最高統帥部는아직 各地에서 攻勢의 再興 治安의攪亂을 企圖하고必死의抗戰을 하고잇다 그리고 그들이目的하는것은 和平運動의阻止 近近誕生하는 新中央政府樹立의 妨害、日米通商條約問題에 關한 對外示威及 目下重慶에 滯在中인 英佛大使에의 對外宣傳示威에 不外하다 그러나 最近敵陣營內部의 動搖는 掩蔽할수업는바로 山西、甘肅、山東各處를 爲始하여 北中支各地에 頻發한 國共相剋等은 그 苦鬪의 實相을 말하는것이요 南支方面에서는 至今까지 根氣지게抗戰하던敵이 最近顯著히 退嬰的으로되어 士氣는喪失한것이 明白히看取된다 支那派遣軍에서는 此際다시 敵에一大鐵槌를 加하여 迷夢을覺醒시키려고 酷寒氷雪을 무릅쓰고 果敢한 剿滅討伐戰을 敢行하고잇다 그中今週의 主要한 戰鬪는 二十一日夕以來開始된 錢塘江南岸의作戰、二十三日부터 包頭南方黃河南岸의殲滅戰、應山、襄陽方面의 掃蕩戰、南支欽縣公路及 南寧附近의 新戰鬪인데 地域的으로 여기에 略述하면 다음과갓다

北支方面

(가)、河北省、山東省方面에 一部의敵이 蠢動하엿스나 我軍은 서로 呼應猛攻擊하여 即時四散시켯다

(나)、山西省及 甘肅省方面에서는 國共兩軍의 衝突이頻發하고 山西東內部의 紛爭에 依하여 我方에對한攻勢는 생각지도못하엿다

(다)、지난十二月末包頭攻擊을企圖하여 失敗하고 黃河南岸地區에敗退한 傅作義의 敵軍은 無謀하게도攻勢의 蠢動으로보이엇스나 我○○、○○快速部隊等은 斷乎 이를 膺懲하려고 行動을開始하여 二十二日以來 果敢한 追擊戰을 展開하고 目下抗戰中이다

中支方面

(가)湖北省北部襄東北方 大洪山系에서는 湯恩伯의 麾下四個師가 새로戰線에 加入하여 頑强히反抗을 企圖하엿스나

(나)我川俣、的野、古川、高野、嶽山、有曉、土橋各部隊는 十九日以來 高城鎭南方十六키로 曹家店 西兩河地域에서 이를捕捉하여 烈風과 그後嚴寒에 猛風雪을무릅쓰고 到處에서 殲滅戰을展開하여 二十三日早曉에 이르러 敵全軍은 드디어 北方으로도 總退却을 開始하여 西大洪山各地帶는 平靜을 回復하엿다

(다)安陸方面及 潛江及 河口鎭方面의 敵은 그後도아직 一部가 蠢動을繼續하엿스나 我猛攻에依하여 潰亂하엿다

(라)湖北省南方 崇陽方面에서 赫赫한 戰果를거둔 佐野 池田 梁兩各部隊는 繼續敗敵을 急追하여 十八日早曉에 通城東北方 十七키로 大谷嶺에서 集結中인 敵七十七師를 急襲하여 潰滅的打擊을 주고 이어서 四川軍第百三十三、第百三十四師를 [illegible] 그리고 通城方面에서는 竹原部隊가 十八日以來 大沙坪東方約○키로의 山地內에 殘存하는 有力敵部隊를 掃蕩하여 徹底的打擊을 주엇다 敵은 目下 [illegible]行動에 나오는 能力도업서 山地內에 陣地를構築하고 一部로써 交通路 破壞의 蠢動을繼續하고 잇엇다

(마)河野部隊及中川部隊는 十六日以來太湖南方及 西南方地區의 討伐掃蕩을 敢行하여 遊擊部隊를敗走시켯다

(바)揚子江下流로부터 山岳地帶의治安確保를꾀하는 敵을 討滅하고 我○○、松井、原田、島田各部隊는 海軍艦艇及 海軍航空部隊一部의 協力을어더 二十一日夜以來 突然 行動을 일으켜 二十二日未明 猛烈한 砲擊을 무릅쓰고 錢塘江南岸을 奇襲하여 渡河에 成功하고 同日正午 빠르게도 浙贛鐵路杭州鐵路의 完全遮斷에 成功하여 要衝蕭山을 占領하고 이어서臨浦鎭、義橋附近의 要地를 掃蕩하여 三角地帶를 明朗化시키고 新戰線을確立하엿다

南支方面

(가)廣東方面에서는 十九日頃江門 增城 高東에 一部의敵이 來襲하엿스나 我方의反擊에依하여 即時潰亂하엿다

(나)南寧方面도 또한 前週以來 敵은 매우消極的이 되어 專혀 陣地構築防備에 努力하고 엇스므로 特記할만한 變化는 업다

(다)欽寧公路에서 ○○部隊는所在의敵을 掃蕩하여 二十、二十一日의 戰鬪에서 敵百三十一師 一八八師를 徹底的으로 擊破하엿는데 我方의 作戰은 極히 順調로 進捗하고잇다

陸軍航空部隊의活躍

陸軍航空部隊는 高田、黑岩、杉本、半谷、明石、今西、杉村、橫田、河村、三角、森岡、荒卷、是松、山崎、田中(友)、石川、古川等 各部隊의精銳 荒鷲는 今週連日의 暴天吹雪을 무릅쓰고 各地에서 活躍하여 山西省臨汾、包頭南方富河流城 山東省濟口、河北省良鄕、柳林水方面 河南省鄭州鎭、南大庄假屋方面의 地上作戰에 呼應하여 果敢한 爆擊偵察을하고 다시中支、隨縣、應山、金家鎭方面沙洋鎭等의 地上作戰에 協力하엿다 그리고 二十一日 泰王部隊는 멀리 寧夏省方面의 敵空軍基地를 攻擊하엿고 二十三日 杉本部隊는 山西省北部綏遠省一帶에 亘하여 敵軍搜索에 多大한 效果를 걷우엇다 그리고 二十四日에 田中(友)部隊는 大擧하여 河北省拒馬河沿岸地區에 蠢動하는敵有力部隊를 奇襲爆擊하여 粉碎하고 錢塘江의作戰에는 今西、杉村、橫田、河村、三角、高田(弘)、阿久津等各部隊가 물샐틈업는 空陸一體의 緊密한 協力을하고잇다 그리고 南支戰線에는 ○○、○○等陸鷲가 連日活躍하고잇다

羅國을威壓

獨、石油問題로

【부카레스트二十五日發同盟】羅馬尼亞의 對獨石油供給問題를 圍繞하고 獨逸對英佛의 對立이尖銳化하고 잇는이때 二十五日羅馬尼亞首相의 말에 依하면 獨逸經濟相 크로디우스氏는 羅馬尼亞政府에 對하여 「石油의 豐富한 供給如何는 獨逸의 生死를 左右하는것인 以上 萬若羅馬尼亞의 石油供給이 獨逸을 滿足시키지못하는 境遇에는 獨逸은 即時다른方法에 呼訴하여 石油供給의 方途를 確保하지 안흘수업다」라고 强硬態度를 披瀝하엿다고하는데 獨逸軍의 東가리사進出과 關聯하여 大센세이손을일으키고잇다 一方英佛兩國政府는 先般羅馬尼亞政府에 對하여 强硬한 警告를發하엿는데 現在羅馬尼亞의 石油産業은 八割이 英佛의 資本으로되어잇스므로 羅馬尼亞로서는 英佛의 警告를 無視하여야만 獨逸의 石油供給을 滿足시킬수잇는것이므로 그立場은 매우困難하다고한다

米國市民의 芬軍參加는自由

【華盛頓二十六日發同盟】米國의 對芬同情은 逐日더하여가는데 루즈벨트大統領은 二十六日 定例會見에서 交戰國의 軍隊가 아닌芬蘭軍隊에 米國市民이 參加하는것은 關係업다고 다음과가치言明하엿는데 米國의 反蘇態度를 示唆하는것으로 注目을끈다 米國市民이 交戰國에 對하여 忠誠을 盟誓하지안는限 外國軍隊에 參加하여도 市民權을 喪失하지안는다 그리고 米國은 芬蘭을 아직 交戰國이라고 認定하지안흐므로 芬蘭軍隊에 參加하는것은 中立法의 違反은아니다 그러나 外國人이 米國領內에서 米國市民에게 外國軍隊參加의 勸誘運動을 하는것은 絶對로 容恕치안는다

八面鋒

◇三巨頭會見完全一致로 湯島會談은 圓滿終了。
◇廣瀨가 이미平和인지라 一致와 圓滿은 不待多言。
◇必需品傳票制度立案 國民은 이미 待機한지久矣。
◇公定價格에는 闇取引이따르고 傳票制에는 무슨 闇이나올고。
◇法網의 틈間을노리는者와 制度의 限界를엿보는者를 어찌할것。
◇政府가 어느點에서 또前轍을 밟는다면 百年河淸이라는 批難이 잇슬것。
◇貿易省流産은 그만이나 外務省事務官黨氣가 問題。

今日夕刊四面

廣告

徵兵檢査와口頭試問에

말더듬든분이大喜

노래나 낭독할때는 말은 술술나와오제만 實際로 말을하려면 더듬게되는분의 矯正法으로써 新目宅矯正法에 研究되여 十五歲以上으로 非常한好評을밧고잇다。目下 누구나 알수잇는 「新目宅矯正法」의學理的說明書 全國의全快者記錄表、上原博士의推奬文等을 一人一冊限無代進呈하니、東京神田スルガ臺「正音研究所」로、年齡을明記하고郵券[illegible]錢에서보내셧다고附記하여申込하기

效果 本位

기침에!

아해、어른할것업시 겨울에第一만흔病은 담과 기침의呼吸器病이다。即時곳치지못하고 오래끌게되면 疲勞衰弱해저서 氣管支炎、肺炎、百日咳、喘息을알케되든지 或은 潛伏結核의活動을誘發하야 肺病에걸리게된다。

コフシロツプ는 效力이大端히優秀함으로 全國大小病院에서 多年間愛用해온 담、 거칠藥으로서 다른種類의기침藥과는달러조금이라도劇藥或은 麻醉成分을 含有치안코 藥맛이 또한 美快함으로 몸弱한사람은勿論 藥을실허하는 어린아해라도安心하고 먹을수잇습니다。

(全國有名藥房販賣)

包裝 120瓦●(家庭用) 475瓦●1900瓦●3785瓦(病院用)

祛痰鎭咳劑

コフシロップ

코후시럽

發賣元 韓洋行 京城●大連●米國國府●臺北●天津

第六十七期末貸借對照表

昭和十四年十二月三十一日現在

資產(借方)	金額	負債(貸方)	金額
現金預ケ金勘定	[illegible]	預金勘定	[illegible]
現金	[illegible]	公金預金	[illegible]
預ケ金	[illegible]	當座預金	[illegible]
(內朝鮮銀行ヘノ指定シタル預ケ金)	[illegible]	特別當座預金	[illegible]
有價證券勘定	[illegible]	通知預金	[illegible]
國債(內手許有高)	[illegible]	定期預金	[illegible]
地方債	[illegible]	別段預金	[illegible]
社債	[illegible]	借用金勘定	[illegible]
株式	[illegible]	借入金	[illegible]
割引手形勘定	[illegible]	他店借	[illegible]
商業手形	[illegible]	支拂承諾	[illegible]
荷付爲替手形	[illegible]	未拂送金爲替	[illegible]
貸付金勘定	[illegible]	假受金	[illegible]
手形貸付	[illegible]	未拂配當金	[illegible]
證書貸付	[illegible]	未經過割引料其ノ他	[illegible]
當座貸越	[illegible]	未拂利息其ノ他	[illegible]
支店	[illegible]	預金利子諸稅	[illegible]
他店貸	[illegible]	株主勘定	[illegible]
支拂承諾見返	[illegible]	資本金	[illegible]
動産不動産勘定	[illegible]	法定準備金	[illegible]
營業用土地建物什器	[illegible]	別途積立金	[illegible]
所有動産不動産	[illegible]	配當平均積立金	[illegible]
假拂金	[illegible]	退職慰勞積立金	[illegible]
株主勘定	[illegible]	當期利益金	[illegible]
拂込未濟資本金	[illegible]	(內前期繰越金)	[illegible]
合計	[illegible]	合計	[illegible]

左ノ通リニ候也

昭和十五年一月

株式會社 朝鮮商業銀行

第六十九期末貸借對照表

昭和十四年十二月三十一日現在

資產(借方)	金額	負債(貸方)	金額
現金及預ケ金勘定	[illegible]	預金勘定	[illegible]
現金	[illegible]	當座預金	[illegible]
預ケ金	[illegible]	特別當座預金	[illegible]
(內朝鮮銀行ヘノ指定シタル預ケ金)	[illegible]	通知預金	[illegible]
有價證券勘定	[illegible]	定期預金	[illegible]
國債(內手許有高)	[illegible]	別段預金	[illegible]
(內指定運用分)	[illegible]	借用金勘定	[illegible]
地方債	[illegible]	特別借入金	[illegible]
社債	[illegible]	當座借越	[illegible]
株式	[illegible]	他店借	[illegible]
割引手形勘定	[illegible]	支拂承諾	[illegible]
商業手形	[illegible]	未拂送金爲替	[illegible]
荷付爲替手形	[illegible]	假受金	[illegible]
貸付金勘定	[illegible]	未拂配當金	[illegible]
手形貸付	[illegible]	未經過割引料其他	[illegible]
證書貸付	[illegible]	預金利子諸稅	[illegible]
當座貸越	[illegible]	株主勘定	[illegible]
支店	[illegible]	資本金	[illegible]
他店貸	[illegible]	法定準備金	[illegible]
支拂承諾見返	[illegible]	別途積立金	[illegible]
動産不動産勘定	[illegible]	證券保有留保金	[illegible]
營業用土地建物什器	[illegible]	當期利益金	[illegible]
所有動産不動産	[illegible]	(內前期繰越金)	[illegible]
株主勘定	[illegible]	合計	[illegible]
拂込未濟資本金	[illegible]		
合計	[illegible]		

昭和十五年一月

株式會社 漢城銀行

株式會社朝鮮商業銀行ハ本日限リ利川支店ノ營業ヲ株式會社漢城銀行ニ讓渡シ漢城銀行ハ一月二十八日ヨリ同地ニ支店ヲ開設シテ朝鮮商業銀行ノ業務ヲ繼承營業可致候此段及廣告候也

昭和十五年一月二十七日

株式會社 朝鮮商業銀行
株式會社 漢城銀行

精力强進劑

蔘茸トニク

蔘茸トニク의 科學的 濃縮製法에 依한

代理店 京城府 [illegible] 東京 · 大阪 · 大連

坊坊曲曲에 넘치는 志願兵熱, 마감前應募二萬六千

適格者만 定員五倍

首位는 京畿道, 咸南이 次位

신년도부터 지원병은 일약다섯갑절을 늘려 삼천명을 모집하는데 원서마감이 이월십일을 앞두고 이십오일까지 각도에 들어온지원서는 경무국경무과조사에 의하면 이만오천구백십육명에 달한다 그중병력기타조건이 처음부터 지원병으로 적당치못하다 판명되어 적격자(適格者)만도 일만사천오백팔십구명으로서 벌서 모집정원의 다섯갑절이나되는형세를보이다 각도별지원자수와 적격자수는 다음과갓다

	志願者數	適格者數
京畿	四七六七	三七七六
忠北	八三三	五九八
忠南	一三五七	一一七三
全北	一六七七	八七五
全南	五〇四	四三七
慶北	四一五七	一六四六
慶南	一三九二	八〇六
黃海	一一五〇	七八〇
平南	八〇六	五九八
平北	八七六	五八一
江原	一三〇八	五三四
咸南	三五五六	一九四五
咸北	一五三六	七四〇
計	二五九一六	一四五八九

歸還志願兵講演會

今日、府民館講堂에서 盛大開催

북지제일선에 출정하여 빗나는 무훈을세우고도라온 『귀환지원병 강연회』는 경성부와 정신총동원 경성련맹과 경성각구특별지원병 후원회등 세단체의 공동주최로 예정과 가치 이십칠일오후한시 부터 부민관대강당에서 성대히 열렷다 한시정각 만장의 청중 파 지원병일동은 먼저 궁성요배 묵도를마친후드디어 만장의 박수 가운데 장단군(長湍郡)출신 보병 상등병 김종환(金鍾煥)고양군(高陽郡)출신 보병상등병 허성(許誠) 보병일등병 박룡래(朴龍來) 연천군(漣川郡)출신 보병상등병 문재현(文載鉉)군등네 명의 연사가 차례차례로등단하여 제일선에서 몸소체험한가지 가지의 생생한체험담을 공개하여 만장의청중으로하여금 감격케하엿다

帝國軍人의 矜持

步兵上等兵 金鍾煥君 演說要旨

전장에 잇서서 여러가지 감격한바가 만흐나 무엇보다도감격한때는 전투때이엇습니다 아프로 적의 포탄이 비오듯하는 가운데를 전진하다가 불행히적탄을마저 쓰러질때 동방을 향하여 『천황폐하만세』를 부르고 하직하는 일본군인의 용감한양자를볼때 저는 제국군인임을큰 자랑으로 느꼇습니다 일본군인은 군대생활에 잇서서 진충봉공의 생각을 북도두고 항상 발전의 정신을길러 제대(除隊)후에도 국가의 중견이 되어 어떠한 난관이라도 뚤코 나가는 큰힘을 기르는것은 참으로 청년의 한번 경험해야 할바라고 생각합니다 제국군인은 적군이수천으로 몰려오더라도 일사불란하여 싸웟는데 지원병일동도 가치용감히 잘싸웟습니다 이에비하면 지나군인은 처음은 완강히 해대나 일본이 세계에 자랑하는 백병전이되면 병기를버리고 달아나는것은 공고한 정신력이 업는것임으로 알수잇섯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인은 전멸이라도 마즈막의 한사람까지라도 용감으로 싸우는것입니다 이정신때문에 우리일본군이 혁혁한무훈을남기며 백전백승하는것입니다 이가튼 체험을 총후의 반도청년과 나누고싶습니다 저 작년오월 제국군인으로서 저이지원병은 여러분의 환호가운데 전장에 향할때 저이는 명예스러운 지원병으로서의 각오는 컷습니다 지나에 이르러사방을 바라볼때 가는곳마다 일장기가 휘날리는것이엇습니다 드디어 전장에 이르러 군기를바라볼때 저도 선배들과 가치 이 군기를 잡는 자랑을 늣겻습니다 저는 반도청년이 모두 자진하여 제국군인이 되기를바랍니다 이생각은 지나의 백성이 장개석의 그릇된 정치하에 떠이는 참상을 보자 더욱 기퍼진것입니다

比、商船케손號 種子島에 礁

【大阪電話同盟】 이십칠일새벽네시이십분경 「푸레시덴트·케손」호는 동경(東經)백삼십도오십육분, 북위(北緯)삼십도십칠분 녹아도현종자도(鹿兒島縣種子島) 남동끗 증황암부근에서 좌초되어 구조를 청하엿스므로 부근을지나가던 대판상선 부도환(浮島丸─四七三〇톤)이 구조하고저 현장으로 급히달렷는데 오전열한시에는 현장에다을예정이다 「케손」호에는 손님열두명 선원백십사명이라고잇는데 근처는바람이 세고 암초가만키때문에 구조선은난항을하고잇다

【大阪電話同盟】 괴·케손호(선장은루비아─씨)는 구주대전당시에 선박이부족하여 곤경에처한 비률빈정부가 괴·케손선(線)을확보하엿는데 어의소속선으로서 미국메─톤부러사의것으로 선까(船價)와 이백오십만원이라고한다

國際愛…"子福"과함께 卅年만에 故土로

◇……動亂의 波蘭을 脫出해온 金相謙氏一家

【橫濱電話同盟】 원산출신으로서 삼십여년전 고국을떠나멀리동구로시아에가서 농장을경영하다가 구주동란으로 부득이귀국하게된 김상겸씨는 이십사일오후일본우선 복견환(伏見丸)을타고 횡빈에 입항하엿다함은 기보한바이나 씨는고국을 잃어버린 폴란드부인과의 국제애의 결정으로서 장남베니아민(一)차남콘스탄친(一)장녀헤리나(一)의다섯 소년파함께 백림제국대사관의 보호를바더 도라오게되엇는데 부인해레나씨는 서적으로 입적치안엇스므로 외국인으로서 취급을바더 횡빈수상서(橫濱水上署)에서는일단상륙을 금지하고조사중이던바 딱한사정을동정하고 이십사일아츰에는 상륙을허가하엿다 김씨는 파란국경에서 가까운 동구로시아의 곤비넨이라는 촌락관유(官有)농장에서 종사하는중 백사십헥타─ㄹ의 농장을 소유하고 평화한 생활을 해오던터인데 작년 구월초하루에 독일과 파란사이에 전쟁이 일어나 위험이 신변에 미칠 염려가 잇서 다음날 오전두시 아무준비도업시 맨손으로 간난애와 네애를 데리고 삼십리나떠러저잇는 곤비넨역에 겨우이르러 파란령차를 타고 열여드레만에 백림에도착되엿스나 피난소에서 일주일 가량잇다가 제국대사관의 알선으로 때마츰 나폴리에기항하여던 복견환으로 고국에오게된것이다 김씨는 말하엿다

난지다섯달밧게 되지안흔간난애와 어린애한테까지오는것은 참으로 꿈가치생각된다 물론돈한푼도 가진것이 업스므로 어떠케하면조흘는지 알수업다 우선상륙이허가된다고 하드래도 조선으로 갈여비는물론 사십원의외국허가료도 업서서 곤난한가운데잇다 조선으로 가면 취직할곳이나 잇슬는지모르겟다 (사진은 횡빈수상서에서의 김씨가족들)

長箭에 大火 六十餘戶燒失

【長箭支局電話】 이십칠일새벽한시이십분경 강원도장전읍내 새장터에서 불이나 삽시간에불길은 사방에퍼지며 장터안에잇던 점포등육십여호가 전부타버리어 장터는 간곳업시 빈마당이되고 말엇다 이시장은그리 큰장터는 아니고 채소며 두부 반찬등속을 파는 적은가게와 노동자들의집이 모여잇던곳이어서 손해액으로서는 불과육천원정도이라고하나 집이며 가장을 전혀태워버린 이백여명의 이재민들은 당장 갈곳이 업서 불탄 자리에서 울며불며 헤매이고잇는터로 눈물겨운 정상을보이고잇다 화재원인은 어떤독신로동자가살든집에서 불이낫다고하나 당자는다라나버리어 확실치안타

芳香 ハイナシン 一吹必殺

電氣學校創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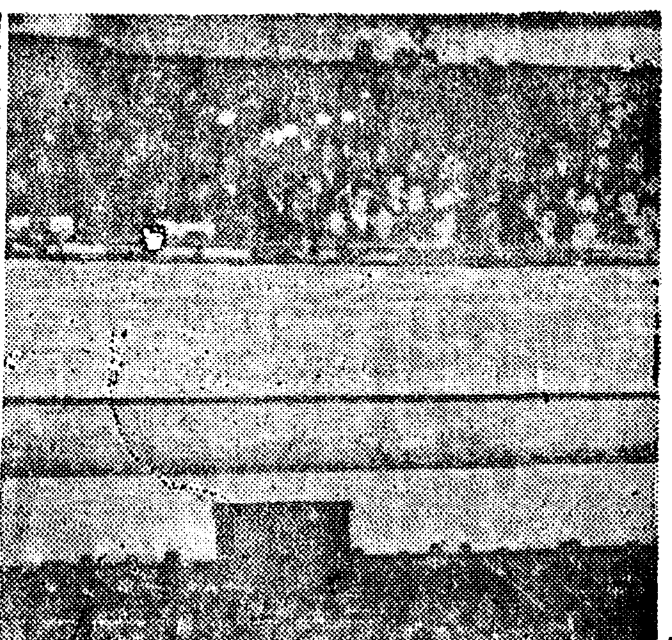
電氣協會에서 申請

전기기술자가 부족하데 비추어 조선전기협회에서는 일직이 양성기관의 설립에대하여 연구중이던바 각전기회사의찬동을어더 재단법인전기학교를 창설하기로되어 요지음총독부에 인가 신청을제출하엿는데 이전기학교는 사월부터개교할예정으로 준비를진행시키고잇다 이제그모집요항을보면 다음과갓다

一、第一種 三年修業 五百名

一、第二種 夜間一年修業 二百名

一、別科 電氣普及 百名



(사진설명 귀환지원병강연회와 청중)

江華島完全封鎖

今日부터 仁川과의 一往復마자 杜絶

西海岸一帶의 各線도 不通狀態

【仁川支局電話】 중부조선의 서해안일대가 유빙으로 말미아마 벌써 교통이두절된곳이 만다함은 기보한바와 갓지만 날씨는 조금도 풀릴가망이업시 추위는 의연계속하고 잇는데 이십칠일에 이르러서는 유빙이더욱 심하기때문에 조선해양사(朝鮮海洋社)의선로 선장선(仙掌線) 당진선(唐津線) 섬연선(暹淵線)왕해선등 일체와 부천등포를 한선 근인 용유선(龍遊線)도 두절되엇고 하루에 여섯번씩이나 내왕하던 강화도 갑곳(甲串)과인 천사이의 항로는 물론 초지(草芝)까지 겨우 한번밧게 내왕못하던것도 이십칠일에 이르러서는 아주 끈허젓다 이때문에 강화도로 육지와 아주 교통이 두절되어 봉쇄상태에 잇다 그리고 문사(門司)로부터 인천경전조(慶田組)의 소맥을 실고오는배도 금일아침에 입항할예정이엇스나 아직 들어오지안흔것은 인천항근해의 유빙으로말미암아 입항하지못하는것이 아닌가하여 염려된다고한다

土砂崩壞로 生埋

八名卽死、二名重傷

筏橋邑、旱害救濟工事場慘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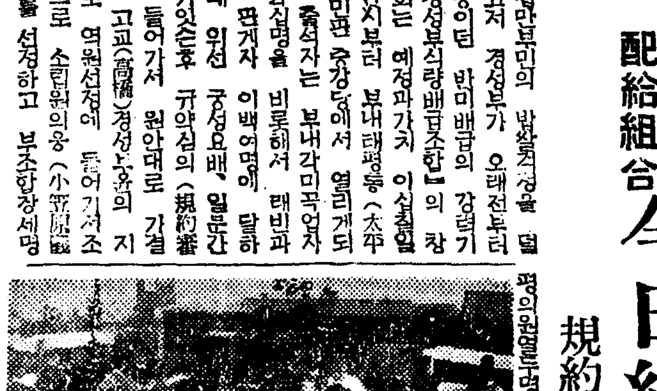
이십륙일오전아홉시 전라남도 보성군벌교읍천부리(寶城郡筏橋邑天府里)한재구제공사(旱害救濟工事)장에서 갑자기 흙덩이가 무너저 작업중의 인부가 모두 산채로 파무첫는데 그중 여덟명은 즉사 두명은 중상을입엇다

體府町火災

이십칠일오전 영시사십분경 부내 체부정(體府町)일백칠십오번지의일호 안종태의집 부엌에서 불이 일어나 부엌한간을태우고 소방조의활동으로 곳 진화되엇다 원인은 저녁에 피인 재두엇던 구공탄불이 여매인던나무에 다은것이며 손해는 일백오십원가량이다

神奈川大火

【大阪電話同盟】 이십칠일 오전영시쯤 신내천현이궁정중리(神奈川縣二宮町中里)에서 불이나서 삼시간에일백여호를태웟다 경방단원이 총출동하여 진화에전력하는중이나 새벽두시까지에는진화하지못햇다



京城食糧配給組合今日結成式

規約審議、役員十九名選擧

평심만부민의 반찬거정을 덜게하고저 경성부가 오래전부터 계획중이던 반미배급의 강력기관 『경성부식량배급조합』의 창립총회는 예정과가치 이십칠일 오후한시부터 부내태평통(太平通)부민관중강당에서 열리게되엇다 출석자는 부내각미곡업자 일백육십명을 비롯해서 내빈과 기타 관계자 이백여명에 달하엿는데 위선 궁성요배, 일분간묵도가잇슨후 규약심의(規約審議)에 들어가서 원안대로 가결한후 고교(高橋)경성부윤의 지명으로 역원선거에 들어가서 조합장으로 소립원의웅(小笠原義雄)씨를 선정하고 부조합장세명 평의원열두명 감사두명등 역원전부를선정한후 황국신민서사제송으로 동세시경에 회를마치엇다 조합은부윤의 지휘감독미테서 부내에서호리지는 쌀, 잡곡류의매매 가공, 저장과 밋배급에대하여 엄격한통제를가할 권한을 가진것이니만치 이번 동조합의 창립으로 부민의반미난은 크게완화될것이 기대된다 창립총회에서 선정된 동조합의역원은 아래와갓다

組合長 小笠原義雄 副組合長 石田[illegible] 同 田長丸重治 李鳳烈 評議員 黑澤文三 永田林一 劉命烈 野部信太郞 林[illegible] 金容德 張基厦 裵興仁 森田光次郎 金胤梓 尹昭[illegible] 李昌云 監事 中谷[illegible] 朴駿秉 吳[illegible] (사진은 창립총회)

浦阿里殺人强盜逮捕

東署에서 昨夜부터 今朝까지에 一黨四名捕盡

지난이십오일 새벽부외 미아리(彌阿里)박점백(朴點伯)의집에 침입하여 주인을살해하고 양복다섯점을 가지고다라난 살인조의상인강도 사건은 물적증거가 업서서 수사에곤난할것이 예측되어던바 이십칠일오전열한시에이르러서 동범네명을 전부체포되엿는데 이들네명 가운데 세명은 모두전과자들로 그들의주소성명은 다음과갓다

原籍慶尙南道原昌郡 住所不定 前科二犯 崔永壽(二五)

原籍開城府出生 住所不定 前科一犯 金淸德(二〇)

原籍府內新堂町三二九의五七 住所不定 前科一犯 閔永臥(二〇)

原籍江原道利川郡利川面 住所不定 金炳五(二三)

이십륙일오후세시 좀지나서 창신정 어떤전당포에 이십세전후 수상한사내가와서 오비를 전당잡히려고하므로 주인은이를 수상히여겨 ... 에 너으려던 외투를 보니 피해자의 아들 박수란(朴壽蘭)의 이름이 어렴풋이 남어잇스므로 전기박순란을 불러물어보니 자기의것이 틀림업다고하나 처음에는 어제종로오정목 제일극장아페서 알지못하는 사람에게서 산것이라고하다가 드디어 자백하엿는데 이자는 원적을 부내신당정삼십구번지 오신철호에두고 주소가일정안흔 전과일범의 민영봉이다

그리하여 동범세명이 가잇는곳을추궁하니 김종렬이외에두명은 성명조차알수업다 고하며 김종렬만은 훈히만수정번집에서자거나 수표정 다리건너편상반집북문은 우미관(優美館) 용인여관(龍仁旅館)에묵고잇다고하므로오늘아츰네시에 이곳을 일제히검삭하엿스나 발견치못하엿스므로 다시전기 민영봉이를 추궁하니 봉래정노동자 합숙소에가서자는일이잇다하므로 곳 그리로달려가 일백오십여명을 일일이 범인과 대면시켯던바 마츰주범인 최영수가발견되엿스나 아직남은 두사람이어데잇는지 알수업스므로 주범을취조한결과 다른 두사람과는 금이십칠일 오전열한시까지 종로후미관여관이나 경성역 전기숙박소 혹은남미창정 음식점남일옥에맛나기로 하엿다하므로 전기각처로 형사대를보내던바 마친남일옥에 다섯사람의 손님이 한때를지어드러오는데 그가운데는 범인 김종렬의인상을가진 사람이 석겨잇섯다 이들을 부체포하여 취조하엿던바 범인김종렬과 전명오가슴뿐아니라 다른세자도 역시얼마전에 절도로서 각방에수배를노코 수사중이던 범인들이엇스나 이번의강도사건과는 아무관련이 업섯다 그런데동범은 사인이나 강도사건에참가하엿던자는 전명오외에 세사람이다

(사진설명)우로부터 주범 최영수, 김종렬, 민영봉 전명오

스포─츠

梨女氷上大會終幕

府內梨花高女校에서는 今二十七日午前十時半부터 淸凉里綜合氷場에서 校內氷上競技大會를 開始하엿는데 同校職員以下校友 生徒가 總出動하여 「윈터·스포─츠」를 滿喫하는 光景과 生徒들의 技術向上을 圖謀하는 趣味에서 競技를 圓滿히 進行하여 午後二時半에 끄를마치엇다 이날 競技中에 가장興味를 북도다준 것은 各小學校의少女들의 五百米競技種目이엇다 同校에서는明年부터 少女氷上競技大會를 꼭 開催키로되엇다한다 (寫眞은 競技光景)

女子氷上大會

明廿八日淸凉里링크

朝鮮體育會主催의第十七回全朝鮮女子學生의大會氷上競技大會는 明二十八日午前九時부터 淸凉里綜合氷場에서 擧行케되엇다 今年에는 素川高女도 參加케되어 在京의高女들과의 競戰이 아닌 白熱戰을 展開할것으로 期待케된다 그리고 競技種目은 다음과갓다

▲五百米(二部)「세파레─트·코─스」 ▲五百米(一部)同 ▲五百米(一般)同 ▲五百米(專門)同 ▲千五百米(二部)「오픈·코─스」 ▲千五百米(一部)同 ▲千五百米(一般)同 ▲千五百米(專門)同 ▲피─귀어 ▲三千米(二部)「오픈·코─스」 ▲三千米(一部)同 ▲三千米(一般)同 ▲二千米繼走(二部) ▲二千米繼走(一部) ▲二千米繼走(一般) ▲優勝旗授與式

一府內各中學의 一校內氷上日程一

府內各中學校에서는 生徒들의 技術向上을 圖謀시키는 趣味에서 淸凉里綜合氷場에서 校內氷上競技大會를 다음과가치 開催케되엇다

▲一月二十九日 中央中學 ▲一月三十日 第一高女 ▲一月三十一日 淑明高女 ▲二月一日 養正高女 ▲二月二日 同德高女 ▲二月六日 城東中學 ▲二月七日 京畿商業

色鉛筆

세상은 바뀌어도 산과물은여전하다고 한다 사람은 죽어도 글은남는다고 말하고싶다▲글에서 더귀한것이업슴은 더말할것도 업지만 적막하든 우리출판계가 근자에 조이가부족하다는 난관을돌파하면서 흥성한것은 더욱 반가운일이다 ▲예전부터 조선은 출판사업이 남달리 발달햇든것으로 보아도 조선이 글을 귀히여엿든것은 짐작할수잇다 측활자(活字)를 만들어내인것이세계에서 가장 일럿다는것이 그 증거이다 ▲그럼는것이 근세에 와서 쇠미하엿다가 지금에서 새로히 재흥을차저내기 시작한것이다 늣엇다면 늦엇다할것이나 역시 반가운일이다

天氣豫報

豫報 오늘도 내일도 西風이 불며 개일터이다 昨日最高 零下七度七 昨日最低 〃 十四度九 今朝最低 〃 十五度五 同正午 零下十度四分

今夜의 放送

第二放送 ▲午後六時 하모니카合奏와獨奏 알파하─모니카 드 指揮와獨奏 崔一出▲同六時三〇分 講演 李炳暹▲同七時三〇分 講演「科學界의토픽」 朴章烈▲同八時 歌謠曲 長松直美▲同八時二五分 京城放送管絃團▲同八時二五分 野談「一勝萬雨」崔夜成▲同八時五五分 西道歌謠 李香紅、田弼奎崔成▲同九時 라디오코메디

手足 [illegible]

鑛業 日産鑛務所 鑛業出願手續 鑛山測量製圖 鑛業一般相談 京城府明治町一丁目 電話本局②五四九九 [illegible]

出張所長招聘 資格年齡二十八歲以上保險界經驗者優遇 ... 愛國生命保險株式會社

女子事務員急募 一名 ... 朝鮮映畵株式會社

地方 事務員採用 ...

痔疾 ...

朝報案內

京城優美館前 全劉寫場 電光三七八番

옷감은 合流로 京城鍾路一の五六

보라 外國이나地方에 ... 合流商會 金思洪

文房具 事務用品 卸商 手帳 三越要 錄型 東光堂文具卸部 京城府齋洞四街 電光③370番

スケート スキー新着 (カタログ進呈) 京城體育具商會

パンタリン 鎭痛 鎭靜 注射劑 10·50·100個入 試用品進呈 京城 三龍製藥社

淋疾治療新學說 佛國기라드博士發表!

現代科學의偉力!

獨逸도막크博士(一九三八年度 노─벨醫化學賞授與者)가 創製한 治淋特效成分 ズルフォンアミド(サッタリム主成分)가 發見된以來淋疾其他 諸疾患에 特效하여 全世界治療醫學界에 一大變革을 惹起하엿다 그리하야 全世界科學者들은 競爭的으로 注意를集中하여 ズルフォンアミド劑療法에對하야 治療效果를多角的으로 硏究하든中 佛國기라드博士는 드디어 ズルフォンアミド와フェニアルゾ─26─チアミノピリチン과 結合한것을 服用하면 ズルフォンアミド단 服用하는것보다 其治療的效果가 二倍나卓越하다고 實驗報告를發表하엿다

サッタリム의化學成分은 普通化學療法劑와相異하다

サッタリム化學成分은 4(4アミノベンツオールズルフォンアミド)ベンツオルズルフォンヂメチールアミド、ベーター、フェニルアゾアルファ、アルファ·ヂアミノピリヂン」인대 佛國기라드博士의 發表한 治淋特效化學成分이 全部드러잇슴을 普通말하는新化學療法劑보다 二倍나뎌잘듯는것이 立證된다

サッタリム의 治療率百%

サッタリム의治療率은기라─드博士가 發表한 特殊成分이 드러잇기때문에 其治療率은 治淋劑中에 最高率이며 斯界最高權威醫學博士諸氏의 實驗報告에依하면 患者의攝生如何에 따라百%(百人中百人)의 完治를볼수잇다고 發表하엿다

醫學博士 佐藤 先生 〃 朴昌薰 先生 〃 鄭槿陽 先生 〃 李鶴松 先生 〃 石津 先生 國際病院長 梁珍鴻 先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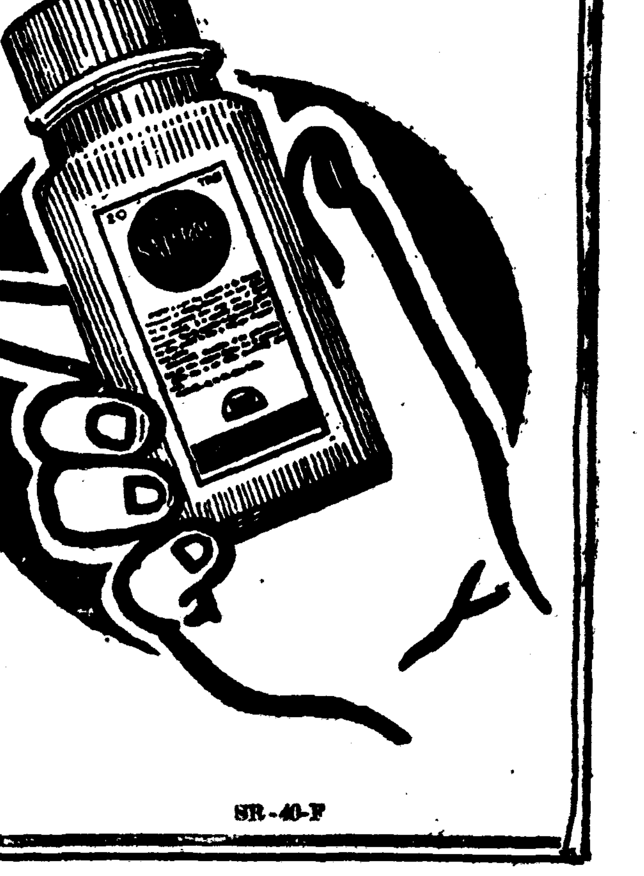
實驗推奬

治淋特效 サッタリム 殺打淋

【包裝】 金性用 五圓 慢性用 十二圓 病院用 二十圓

京城府西大門町 總發賣元 新興製藥所 支店及出張所 北京·大阪·奉天·哈爾濱

SR-40-F



興南港은朝窒專用 一般貨物은取扱안키로

富田商會通告로咸興、興南에衝擊

【咸興支社發】 함남상공업자들에게 치명적타격을주게될 흥남조질회사(朝日窒素)의 통고— 흥남조질회사의 직계운수업 전상회(富田商會)에서는 이번에 함흥 흥남 두상공회의소에 대하여 종래 흥남항으로부터 상반시키던 일반화물은 금후조질회사만게 화물이 만히지므로 그우양을 중지한다는 청천벽력가튼 통고를하여왓다 즉 그들의말을들으면 흥남항에서 유양되는 하역능력(荷役能力)은 조질회사관계의 화물계증으로 금후 일반화물에대한 개방은 할수업스며 전용항으로만 쓰게할터이라고한다 이러케되면 함흥 흥남상공업자들이 수이입 하는화물은 흥남항으로부터 적은 선박에 바꾸어 실고서 서호진(西湖津)작도에서 유양하게되는데 이러케되면은 작도에서 마차로써 다시 신흥철도에바꾸어 실어야한다 그러면 종래 흥남에서 유양하든때에 함흥까지의 운임 한톤이 이원이십오전이엇든 것이 육원오십전가량이 되어 삼배나더불게 될뿐아니라 비싼운임을 부담하게되며 도지방수요자들도 비싼물품을 쓰게된다

이것은 함흥, 흥남의 상공업계에 치명적타격을 주는것으로서 지금대책을 강구중이며 함흥부내의 업자들의여론은 비등한다

"咸興의死活問題" 咸興의某有志談

이에대하여 부내모유력자는 다음과가치말한다 흥남항은 본래일반상공업자에게 개방한다는것으로서 되엇든 것인데 조질회사에서 전용항으로 독점한다는것은 부당한일이다 이러케되면은 함흥은 항구가 업는도시로서 내외 함흥수이출의길이 막히게될것으로 생산소비양방으로도 함흥은 죽는도시가된다 이문제는 비단 함흥 흥남의 상공업에만관계되는 문제뿐아니라 함흥의사활문제가되는 중대한문제다

尨大한江原豫算

一千萬圓臺로査定中

【春川】 때는「템포」로써 약진에약진을 거듭하는 강원도세는 순까지는 도지사사정까지끗내리라한다 예산면에나타난 비용은 해마다 면목을 일신하여오는터로 여기에힘을부고 원흥면흥기르는 강원도예산도 해마다늘고 잇다 소화십사년도예산은 칠백구십만원으로 전에업든 방대한 예산면을 보엿거니와 십오년도 예산은 아직사정은 끗나지안햇지만 천만원대를 유발하리라고 예상하고잇다 각파의 요구액은 현재일천이백만원대로서 한편 로로동의 추가요구액도 거액에달한다 그다음으로 농무과의산미증산계획과 토지개량비등도 전에업는거액이 필요하게되엇다한다

慶北新年度豫算

千七百萬圓으로査定完了

【慶北支社發】 경상북도의 소화십오년도예산안은 지난 이십일내무부장이 사정을마치고 즉시총독부에 출장하여 판계국과장파 절충을마친후 이십칠일아침귀임하엿는데 역시 비상시국대책의 중요사업수행에 중점을두는것만치 일직이보지못하던 방대한액수인바 본예산입천사백팔십만원에 한해대책사업비 이백팔십만원을합하면 일천칠백사십만원에달하여 경북도 창사이래처음보는 거액이라한다

遞信事業擴充

平壤分掌局의計畫

【平南支社發】 체신관계의 평남도약진한다—평양체신 분장국의 말을들으면 조선지방 발전에대응하여 그분장국에서는 신년도중에 약진선교리(船橋里)에우편국을신설하고 또기원이천 유백년기념사업으로 경비십이만원을들려『평양체신회관』을 건설하기로되엇다 이미기지까지 매수하고 해빙조속착공 하리라고한다 이외에 경성—평양간의 통화폭주에 대처하여 회선을 증설하고 그외회를 기다려평양상가의영등포(東京)명고옥(名古屋) 신호(神戶)하관(下關)문사(門司)등지와도 직접통화를 할수잇도록까지 하기로되엇다

手紡綿布賣買禁止

【平南支社發】 면화국책의 강화를위하여 이제는 농가에서 손으로짜는 면포(手紡綿布)즉 무명도 판매용으로는 일체제조하지못하게 법으로금지하엿는데 최근농가에서는 식량의구입 현금필요등에 의하여 자가용으로가지고잇던 무명까지 팔고나와판사시는 사실로판풍으로 배치만

飯米供給의完璧陣

各道、擔當職員增配萬全企圖

江原

【春川】 당면한 긴급무제인 반쌀의 수급을조정하고자 강원도에서각 군읍면에 식양배급통제조합을설치하고 착착 그입무를 다하고 잇스나 현재 계원만으로는 도모지 손이 미치지못하여 중대한 책임을 다할길이업서 강원도농무과에서는 직원을 증원시킬방침으로 방금 예산을 요구중에잇다 증원할직원은 약삼배여명으로 먼저통필기관인 도청식량배급 대책에관한 사무에종사할직원을 늘리고 각군읍면에도 한명식비원에도한명식 배치하리라는 것이다

全北

【全北支社發】 전라북도에서는 식량배급 통제사무에 종사할직원 농산과 축산과 가격통제에 관한사무에 종사할직원 한제구제사무 대책에관한 사무에종사 직원을 늘려서 기구를 강화하고 비상시하 국민생활의안정을 도모하고저 이백일명의증원을 요구하엿는데...

開城에大火

四戶四棟全半燒

【開城】 혹독한 겨울바람이 누더웟치는 지난이십오일오후 여섯시쯤 개성만월정(滿月町)삼백팔십사번지 박태업(朴泰業)(二四)이

炭坑에出炭督勵隊

成北道家庭用炭供給圓滑策

【咸北支社發】 석탄왕국에서 석탄이업다니 어찌할까—함북에 가정용탄의 결핍은 매우격심한감이잇서 당국으로서도출탄(出炭)방법을 고려해오던바 이즈음에는 독려하는 출탄위에는 탄광업자를달래는 방법이안되므로 함북에서 도상공과에서 중요탄광에 사람을보내어 석탄출하의원활을 도모하도록 협력하라는 엄중한독려대를 응동케 시키게되어 이십삼일부터 오늘동안 실행하고잇다

竊盜常習犯

淸州檢局에送致

【忠北支社發】 본적을청주군현도

愛國翁李元夏氏

記念碑除幕式盛大

【忠北支社發】 애국옹 고이원하(李元夏)씨의 기념비제막식은 이십일 오후두시부터 청주군사 수면사창리(淸州郡四州面司倉里)에서 관민유지다수참석하에 자못성대히 기행되엇다

平原에마마

平南痘禍도漸擴大

【平南支社發】 천연두는 마츰내 평안남도에도 여러곳에서 발생하여 일반도민을 놀래게하고잇다 (평원)군하에 두명이나 새환자가 발생하엿다 평원군숙천면양리(兩里)공사장성판발(...)의 계얼동양순녀(...)

全南道에서各郡邑面에通告

群小『매가리』業整理

道內二千五百餘名中極小數에許可하도록

【全南支社發】 전남도내에는 현재 각농촌에잇서서 오마련이하의 소규모 매가리업자가 삼천오백명의 다수에 이르는바 이들이사용하는 정백기계는 대개불완전한것으로도가튼 분량의쌀을찟는데도 벼가더들게되어 매우불리할뿐아니라 절미운동을철저히하고잇는이때 그대로둘수업서 전라남도에서는 이것을 정리하게되엇다

八人組黑샤쯔黨

北釜山署서逮捕

【慶南支社發】 지난이십오일 북부산서에서는 부산진방면공장지대를무대로 횡행하던 부산부범일정이백삼십삼번지 허정도(許正道)외칠명을 체포하엿는데 이들은 작년부터 금년일월까지 부산진방면에서 강절도를 하여왓다한다

金密輸發覺

黃州署에서四名檢擧

【黃海支社發】 황주군황주읍(黃州邑)일백팔십번지 사진업자 안정무(安貞武)... 금은세공업자 김계춘(金桂春)... 이봉근(李奉根)...

江原特殊鑛調査

總督府서調査班派遣

【春川】 국가의 금보유량을 늘리고저 산금증산계획의 강원도 특수광조사반을 파견하기로되엇다 ...

産金懇談會

二月九日開催豫定

【平南支社發】 평안남도산금간담회

高敞에連日大雪

尺餘積雪로交通杜絶

【高敞】 계절을따르는 기후는약오일전부터 줄기차게 눈이 나리기시작하여 ...

忠南林道二個所

新年度開發키로決定

【忠南支社發】 충청남도림무과에서는 ...

道民의意思反映爲해

道治懇談會를常置

各界人物網羅·咸北道서새試驗

【咸北支社發】 함북도당국에서는 대표자-실업계판공서 금용의사를 도정에 반영시켜볼 생각으로 ...

馬山郊外에出現할

療養所着工在邇

【馬山】 부산지로 이름높은 마산교외에서도 산수가 가장 명미하고 안온한 장소로 가포리에 공사비 ... 요양소를 건설한다는...

玄米鬪取引者

北釜山署서取調

【慶南支社發】 지난이십오일 ...

楡坪小學에火災

校舍全燒、損害萬五千圓

【咸北支社發】 ...

青年鐵道自殺

【元山】 이십사일밤 열한시사십분 원산역발 경성행열차가 ...

忠北道內에痘患

又復二名發生

【忠北支社發】 천연두환자는 ...

간질 (까무러치고 吐食·血)
癡攣·히스테리— 中風·腦神經衰弱
「再發防止」에,此療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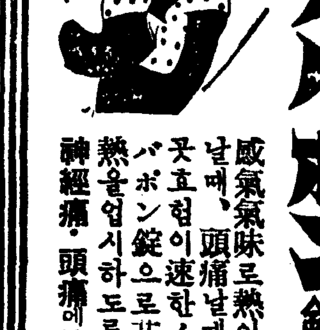
感氣는萬病의原因
治療는效果確實한……
ノーバポン錠
感氣氣味로熱이날때、頭痛날때 곳효험이速한ノーバポン錠으로熱을업시하도록 神經痛·頭痛에도
(四十錠·一圓 各藥店에있음)

006382
毛 毛織物
洗濯하기에 달렷습니다
純正新洗劑 モノゲン
毛織物을오래保全함에는무엇보다도正當한洗濯이第一重要합니다。 때와몬지가무든곳이傷하기쉬우므로 옷솔로몬지를떨고 モノゲン의溶液에 당것다가부비지말고곡곡눌러서빠는 것입니다。石鹼과 달라서털온줄지안코 코뎃뎃해지지안코 감을傷하는일이조금도업습니다。
(定價 一、二〇.五〇.七五 吳服店專賣品)
毛의不老長壽
ダンアマルセール石鹼本舖 第一工業製藥株式會社
M-1-26

日立モートル
本店 東京市麴町區丸ノ內二丁目十二
京城營業所 京城府古市町二十一(片倉ビル三階) 電話本局(2)一八一六(代)五八一六(長)
平壤出張所 平壤府相生町一 電話平壤四三二七
淸津出張所 淸津府港町一ノ六(商工會議所) 電話淸津二八六三
日立ホイスト 日立電氣ドリル 三相日立モートル
日立製作所

積極的强壯劑
Fufaba Brand 全國藥店에서 販賣함
ビクラ 비구라
IKURA
ビクラ는液劑並今回新發賣의錠劑의二種有함 全身의神經系統을强化하고、食慾을旺盛케하며榮養을補給해서 貧血을고치고 精力을增强해서 病弱을一掃함。一般身體狀態의改善에 極히有効한强壯劑이다。
適應症
心身의過勞、神經衰弱、食慾不振、結核、肋膜炎、腺病質、重病後及手術後의恢復期、新陳代謝障碍、榮養障碍、精力減退、視力減退、四肢冷感等。
【シロップ狀液劑】 一五〇瓦 二圓五〇錢
一瓶入 七圓八〇錢
(說明書進呈)
製造發賣元 岡山市紙屋町 株式會社 林源十郎商店
VK35

物資節約時代の經濟齒磨
仁丹の半煉齒磨



ウテナバニシングクリーム
强한皮膚아름다운皮膚는어떠케생기는가!
朝夕우테나를—드르皮膚를길드려주십시요。强力的榮養素가힘잇게수며드러서잔주름과 군살느러지는것과거칠게되는것을解消하야彈力잇고아름다운柔肌가됩니다。
·皮膚의榮養에 ·맛사-지에 ·洗顔하시는데 ·濃化粧下에
B.11

災害對策과農業企業化

農業의資本主義化로 諸災害를克服하자 (1)

鄭 和 濬

近代科學이發達하야 自然에對한 征服能力을 가젓다하여도 이것은決코 絶對的인것은아니다 그러나 도어느限度에잇서서 이것에 對抗할수는잇고 어느程度로 이것을 征服할수잇는것만은 明白한일이다. 災害라면 農業에 對한 이自然이 끼치는 勢力으로 大旱水, 霜害, 蟲害等가지고 해아릴수잇다 그리고 이 災害에 對한 救濟論策에는 옛날부터 爲政者들이 取하여온 여러가지 方法이잇스며 現今에잇서서도 이에方法의範圍를 크게벗어서난 드러나는對策이 아직업는것만은 事實이다.

古來로東洋에서 施行해온對策으로는治水, 灌漑工事等事前의 豫防的工作도 엇지는안엇스나 主로事後의策인 救濟事業에注力하는點이 만흔것으로 수잇서 大體로 古代支那의對災策인『散利』(穀種食糧을 貸與하는것)『薄征』(租稅輕減)『弛力』(賦役을中止하는것)『舍禁』(遊獵을 禁止하는것)外諸策을 擧示할수잇다.

朝鮮에서도 옛적 三國時代부터 [illegible] 災害에 對한 賑恤策이 되어『存問給籍』[illegible] 等이 代에 取한 方法이라 하것스며 高麗, 李朝時 [illegible] 災害에 對하여 三年間이나 租稅를 免除하여다는것은 너무나 有名한 歷史的事實이다. 以上 賑恤策以外에도 堤防을 修築한다든가 灌漑를 設施하는等 一種의 土木工事를 起擧하는 救濟策이엇섯든것도勿論이다. 그러나 筆者가 어느곳에 論하려는것은 이러한 事後의對策이아니라 全根本的對策으로서 農業의企業化 卽 그것의資本主義化라는 武器로써 不意로 擧襲하는 諸災害에對하라는것이다. 그리고 이方法이 現今可能性잇는 範圍內에서의 最根本的「救濟的」對策으로 나는잇는다. 以下朝鮮農業의 現狀에 關聯하여 究明해볼 問題에 그企業化問題의 若干에對하여 論코저한다.

× ×

그러면 어떠한 農業의資本主義化란 强力的인것이가? 오늘의 農業의 資本主義的 發展은 資本的社會에잇서서는 不可避的이다 그리고 그形態는 勿論 工業部門의 進步와는 比較할수업슬만치 緩慢하여 明確한 發展과 正確한判斷을 나리기에는 困難한것이나 農業에잇서서도 工業에잇서서와 마찬가지로 大經營은 모든 弱小經營을 驅逐하는 傾向이다. 따라서 農村에도 資本社會의 文化的影響은 [illegible] 미치어 農村生活을 革新케하며 支配하는 傳統과 因襲을 突破하고 農村人口의 資本主義的分化가 不斷히 促進되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一般의 地方의特殊的 諸事情의 具體的分析이란 立場에서만 그 [illegible] 問題는 아닐것이다. 그러므로 論者中에는 [illegible] 時代로보고 [illegible] 發展의 一斷을 보고서 곳 資本主義化와 [illegible] 하는 이 적지안타.

더욱이 外地農業으로서의 朝鮮農業은 그特殊性에 尤甚하여 內地農業과 마찬가지로 生産樣式에 [illegible] 關係되고 잇서 [illegible] 作用農業이라는 自然的條件下에 잇는 同時에 여러가지 社會的 [illegible] 을 한다는것을 [illegible] 아니된다. 그러나 外地農業의 [illegible] 發展에 때로는 이것과 [illegible] 的地位에잇는 內地農業을 [illegible] 迫하는일도 잇스니 어는 低價인 外地農産物의 洪水가 內地農業에 [illegible] 된다. 朝鮮農業은 對外的 [illegible] 니라 對內的으로도 [illegible] 에잇서서도 [illegible] 고 잇스니 昭和十三年中의 生産價額 [illegible] 을 除外함)으로 보아도 알수잇다 (單位百萬圓)

農産額	一五七、五七九
林産額	一五、六七五
水産額	一八、九八二
工産額	一一四、〇一二
合計	三〇六、二四八

卽 農産額은 總産額의거의 五〇%나占有하고잇고 工産額에比하면 實로 一·四倍에 達하는바 이것은 [illegible] 아니고 近來數年間 [illegible] 되엇스므로 그다지 [illegible] 의 計算인것을 [illegible] 서서의 重要性은 더다시말할 것도업다.

增産金割增制廢止 金買上價格引上

"產金用物資優先配給等要望" 朝鮮鑛業會中央에陳情

政府는 增産金割增制度를 創設하엿스나 本制度는 運用上手續이 繁雜하고 不安이만허서 業者의 期待에 反한것이오 依然히 金買上價格引上이 熱烈히要望되며 産金用物資의 優先配給이 焦眉의急務이므로 朝鮮産金業者를 代表하여 朝鮮鑛業會에서는 總督府當局에 이事情을 具陳하고 陳情한바잇섯거니와 總督府만의單獨政策으로 左右될問題가아닌만콤 朝鮮鑛業會에서는 金政策의 根本的樹立을 要望하고 左記陳情書를 作成하여 가지고 理事二人 主事一人이二十六日出發渡東하여 在東京理事와 合勢하여 大藏省, 商工省, 拓務省等 關係各省에 陳情하고 所期의 目的을 達成키를 期코잇다

陳情書

今般聖戰의 目的을 貫徹하기 爲하여 銃前銃後의 區別이업시 國家의總力을 傾注하고잇고 特히 産金事業에對한 國家의負託은 極히 重大한것이잇서 朝鮮에잇서서도 이國策에 順應하여 業者 産金五個年計畫을 樹立하고 어미 其第二年을 보내고 第三年을 마지하엿다 그런데 時局의推移에 伴하여 物價騰貴는 顯著하여 金生産費의增大는 顯著한것이 잇슴에도 不拘하고 金買上價는 昭和十三年五月에 引上된재 今日에 이르러 現行價格으로서는 收支가 맛지안는데다가 資材의 配給不圓滑, 勞働者 技術者의 需給困難, 旱魃, 寒天等天候의不順은 連年으로 繼續되어 産金上의 障碍가 續出되엇스나 業者는 事業의重大性에 鑑하여 自己의 採算만에 捕捉되어지 大局的見地에서 여러가지로 對策을 講究하여 所期의 目的達成에 專念苦心하엿다 그랫스나 旣往의實績은 豫定産金量을 實現치 못하게된것은 國家의負託과 産金業者의 使命에 反하여 遺憾되는바이다 時局의 推移와 國情의現實에 鑑하여 金의增産은 一層重大한 意義를 가지게된今日 産金業者는 이에 過去의不振을 一擲하고 將來의增産에 拍車를加하여야될것을 痛感하는바이나 現行制度下에서는 到底히 産金業者의 自力만으로서는 實現하기가 困難한事情에 잇스므로 이것을 賢察한後 政府에서도 有效適切한 對應策을 講究해야 될것을 期待하는바로서 就中 左記에揭한事項에 對해서는 急速히이것을 實現해주기를 朝鮮産金業者를 代表하여 陳情한다

一、金買上價格은國際市勢를基準으로하고 따로이相當額의補助金을支給해줄것

理由

(가) 昭和五年 我國은 金本位로부터 離脫하고 國際市勢를 基準으로하여 金을 買上하기로 決定하고 이것을 實行한것으로서 爾來 國際事情에 順應하여 買上價를 改訂하여 昭和十二年五月에는 一瓦三圓七十七錢으로하고 翌昭和十三年五月에는 一瓦三圓八十五錢으로 되엇스나 國際市勢에 依한 金買上價格은 變更을 停止한채 今日에 이르게된것으로서 支那事變勃發前과 今日의金買上價는 겨우二·一%가 値上되엇는데 不過하다

그런데 他面九·一八物價停止 當時에잇서서의 卸賣物價指數는 昭和十一年五月을 基準으로하면 日本銀行調査에 잇서서 四十五%의 騰貴이며 金의 買上價는 八%가 値上되엇슬뿐으로 卸賣物價指數의 騰貴에比하여 其差는 매우 甚하다 産金國策五個年計畫은 昭和十二年中頃에立案되어 當時의 物價指數에 基하여 大中金山에잇서서는 最低一噸中金四瓦以上을 處理하기로되엿섯는데 其後立案當時에 엿저버어다서 豫想도 못햇든 새로운情勢의變化로因하여 現在에 잇서서는 鑛石一噸中金六瓦內外의것이 아니면 採算이맛지안케되엇스므로 大多數의金山은 經營難에빠지엇스나 事業의 重大性에鑑하여 겨우操業을 繼續하고 政府政策의 變更을 期待하고잇는바 事情이 急迫된 現在에잇서서는 오래동안 現狀에견딜수업서 休止할수바게업는 狀態에잇다 萬若 不幸한 運命下에 一端休止되면 廢山도 不得已하게될것이며 그러케되면 再開에는 巨額의 費用과 時日을 要하게되므로 産金國策上 深憂에不堪하는바이다

(나) 金買上에 [illegible] 過去의 [illegible] 對한 [illegible] 昭和十三年 [illegible]

二、産金用物資資材의 配定에關해서는一層考慮해줄것

理由

[illegible] 長期戰化와 [illegible] 生産資材의 增大에 [illegible] 勞働力의 低下不足 技術者의 [illegible] 其主因이 되는것으로서 就中 物資配給의 [illegible] 其配給에關해서는 一層優先的으로 考慮해줄것

社團法人朝鮮鑛業會

昭和十五年一月 日

市販古小麥市況

(市販古小麥商況) [illegible] 不動으로 市況이 不良하다가 再次引戾되엇다

米穀道外搬出量 比前年四分一未滿

十二月中겨우廿萬四千十二石

米穀統制强化에依하여 米穀의 移動은 자못不振을反映하고잇다 卽農林局調查에依한 十二月中의 米穀道外搬出高를보면 二十萬四千十二石으로 前年의 四分의一에도 達지못한一方 十一月以降累計는 四十八萬三千三百六十三石으로 前年同期에比하여 百十七萬五千九十石의 激減을보이고잇다 各道別 道外搬出數量은 如左하다 (單位石)

一、米穀道外搬出數量

	搬出數量	十一月以降累計
京畿	三六、九二四	一九八、〇〇三
忠北	二、三六六	四〇、二七
忠南	三六、五九二	三六、九三
全北	二、四四三	五、四四九
全南	二七、一六六	四三、四四九
慶北	三三	一、〇七
慶南	五、四四九	一、二五六
黃海	一〇、一三一	一二七、六三一
平南	八四一	八六三
平北	三、〇〇一	五五、六六八
江原	一四、〇八一	三六、九六一
咸南	九、三二一	三〇、一七四
咸北	一、一四一	一、六四〇
合計	二〇四、〇一二	四八三、三六三

二、米穀移出數量

	移出數量	十一月以降累計
	四四、〇三二	一八六、一六五

三、米穀輸出數量

	輸出數量	十一月以降累計
	二、七四七	一五、二六九

米穀買上不成績

豫定買上量確保코자 各道에督勵隊를派遣

總督府에서는 內地移出及 朝鮮內需給調節을 爲하여 第一回 九十六萬九千石의 米穀買上을 決定하고 지난 十七日부터 各道에서 買上을하고잇는데 實施以來의買上狀況을보면 반드시 好成績이 아니므로 總督府米穀課에서는 課員을總動員하여 各道에 左記督勵隊를 派遣하여 豫定買上量의 確保에 萬全을 期하기로되엇다

派遣處	派遣員	日程
京畿	松木屬	未定
忠南北	美代技師 仲屬	廿七日부터三十日까지
慶南北	吉池技師 千葉屬	廿八日부터一日까지
黃海	山本技師 務台技師	未定
平南北	河越技師 村田屬	廿八日부터三日까지
江原	渡邊屬 松永屬	廿八日부터二日까지
咸南北	渡邊事務官 毛利技師	未定

北支서石綿鑛發見

日滿實業協會에들어온 情報에 依하면 北支地下資源中 가장重視되어잇는 石綿이 北京近郊昌平縣吉寺村에서 埋藏量百六十萬噸에達하는 大石綿鑛山을發見하여 當地村川勇氏가 現地軍當局과 協力下에 그開發에對하여 計畫中이던바 日産코제른의協力을 어더 資本金廿萬圓으로써 北支石綿公司인 開發會社를設立하고 드디어二月上旬부터 開發事業에 着手하기로되엇다

日銀券續膨脹 三十一億圓突破

날로膨脹을거듭하는 日銀券發行高는또擴發되어 二十七日에는 越된發行高를보면 마침내 三十一億圓을 突破하여 三十一億二千九百五十一萬七千圓으로 前日에比하면 三千百七十萬四千圓의增發이며 따라서 限外發行도 四億二千八百二十三萬圓으로 增加되엇다

鮮銀券收縮 限外發行은再現

二十七日에 締越된鮮銀券은 四億二千七百十二萬八千四百五十一圓으로 前日에比하여 百六十萬七千二百六十九圓의 減少이엇스나 正貨準備의 減少로 昨日消滅되엇던 限外發行은 再現되어 百十三萬八千百八十一圓四十四錢이엇다

一月度統制絲 各道配定決定

殖産局에서는二十七日 一月度統制絲量을如左히各道及團體에配定決定하엿든데配定合計는綿絲三千三百六十梱「스파」及人絹絲三千萬四千九百封度이것을 前月에 比較하면 綿絲는三十五梱減毛絲二百七十五封度增 人絹不變이다 各道團體別內譯은 如左하다

	綿絲	「스파」及人絹絲	毛絲及毛紡式「스파」
京畿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海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工組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絲工組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工業組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綿絲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窒火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法務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專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內地委託加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人絹工組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一銀異動

東一銀行에서는 今回長湍院支店支配人崔鎭源氏退職에伴하여 一月二十四日附로 左記異動을發表하엿다

▲元山支店支配人代理 金鍾說 命長湍院支店支配人 ▲大川支店支配人代理 李康河 命元山支店支配人代理 ▲庶務課職員 徐相綱 命大川支店支配人代理 ▲洪城支店廣川出張所支配人代理 鄭昌熙 命禮山支店合德出張所支配人代理 ▲長項支店支配人代理 尹殷炳 ▲命洪城支店廣川出張所支配人代理 ▲禮山支店合德出張所 支配人代理 金正福 命長項支店廣川出張所 支配人代理 吳灝淳 命天安支店勤務

土改初年度着手 四萬三千町步

新年度부터 着手하는 增米計畫中에 包含된 土地改良事業의 第一年度 着手面積은 大地區三萬町步 小地區七千町步 耕地整理 三千町步 暗渠設置一千町步 十町步未滿 又는 在來式 堰堤狀施設 二千町步 合計四萬三千町步로 決定되엇스나 施策地域에 對하여서는 總督府 農林局에서는 關係地元住民의 實行力잇는熱意를 尊重하기로 方針을決定하고 各道에 希望地域의 調查報告를 命하엿다 但大地區中 昭和水組(二五五〇〇町步)만은初年度에 着手하기로 確定되엇다

今日의市勢 二十七日

▼…問題의 關西地方電力不足은撲滅的最後一線을彷徨中。 ▼…日殺電當事者는 石炭入手를要한것은 關取引을 안한데基因된것가치 辯明。 ▼…要컨대 米內閣에 石炭國家管理를 新行할勇氣가엇는가가問題。 ▼…今般의電力問題는 朝鮮으로서도 他山之石으로할이니 ▼…米穀買上成績은 鮮明와갓지못한모양。 ▼…一般의實情心理를 是正할秘方은 무엇?

株式 鐘紡中心으로瓦落

前場下放

今朝는 東新一圓三低인 百卅八圓九, 大新一圓四低인 七十一圓四, 朝新三低인 卅二圓丁, 鐘紡三圓四低인 百六十七圓一, 鐘新二圓二低인 百八圓五에寄付된後 鐘新은百七圓臺로續落되엇스나 其他는大體로 保合모양이다가 結局東新百卅八圓九, 朝取卅一圓六, 鐘新百六十七圓五, 安取十九圓五에大引되고 後場은例休이엇다

電力不足反響 鐘紡新舊關門割

現下焦眉의 急務인 石炭入手問題는 三井, 三菱의 否定的回答으로 그前途가 자못憂慮되는바인데 勿論一時的으로 何等의 方法으로든지 危機를打開할수잇다하여도 將來는 亦是問題이며 一方日米通商의 無條約時代現出로 米國의恣意가警戒되는터이므로市勢는 一澳下放을演하여 東新은百三十八圓臺의 低價를示하고 鐘紡은드디어 百七十圓關門을割込하여 百六十七圓臺로 鐘新은百十圓臺를割인 百七圓臺로 落되고 말엇다 더욱이 鐘紡鐘新落이 激甚하여 恐怖市勢的様相을 떠고 잇섯는데 目下의 電力不足은 紡績業은勿論 生産全般에 對하여 甚大한 反響을 주고잇스므로 電力問題自體가好轉을보기前에는 市勢의 恢復은 바랄수업고 드리어 反만잇슬 다시實甲될 形勢이엇다

安東取引所 滿取合倂條件

(新京發商通) 政府는 滿洲證券取引所에依한 國內一取引所主義를取하고 必要가잇는 場所에 取引의支所를 設置할方針을 確立하엿는데 이에基하여 目下經營上의 困難에빠지고잇는 安東取引所를 滿取에吸收合倂하여 支所로 하기로 決定하고 目下 滿取와 安東取 兩取引所의 合倂조건을 協議中인바 安取株主는 安取의 合倂條件이 다음과 가튼것으로 結局되리라 보고잇다

一、右整理完了後安取는 減資後의 二萬株로서 一對一의 比率로 滿取와의 合倂에依하여 百萬圓으로 增資함

一、增資株一萬株中一萬五千株는 八對三의 比率로 安取舊株主에게 配定함

一、殘額五千株는 時價로써 有力人에 引受시키고 證券取引所의 後援을 하게하는 同時에 그代金으로서 安取不良資産의 償却에 充當함

安取建株制限

安東取引所와 滿洲取引所의 合倂은이미 그大綱이 決定되어 三, 四月頃에는 合倂이實現될것인데 朝取의 安取株取組는 現在表面만으로도 一萬五千株에達하고 實際의取組量을合치면 三萬株以上에達하므로 그形勢는注目되는 朝取에서는同株式에對한 不當思惑을 防止한다는 意味로 二十六日突然商議員會의 決議에 依하여 三千株以上의 建株量 制限(現在의建株整除합)하엿스므로 關係方面에 衝動을주고잇다 安取株의賣買價는 二十圓을 中心으로 高下를 거듭하고잇는데 朝取가建株의 制限을 行한것은 今回가 最初이라한다

朝石增配說否定

朝鮮石油에서는 西朝鮮方面에 新工場을 建設키爲하여 現在資本金二千萬圓을 倍額增資한다는 說이傳하나 會社當局에서는 이것을 否定하고如左히말한다

元山工場은 製油工場으로서 現在以上의 擴張餘地가업스므로 將來增産한다면 危險分散의意味로 또는大陸의進出에備하여 西朝鮮方面에工場을 設置할必要가잇는것은 생각되나 計畫中이오 增資는 現在考慮치안코잇다 元山工場의 製油設備의完成에伴하여 設備資金으로서 未拂込徵收를行하게 될지도모르는다

現物도投崩

現物은 電力問題의惡化로 本格的 投物이나와 一般으로一、三圓下放을 示하엿는데 一方船株도 日米通商의 不安定으로 大槪一圓가량의 下押을보이엇다

延取 極閑散裡 不變

前場一本 今朝는玄米二區 二月限에잇서서 四十二圓二十八錢一本을付하고 其他는 모두不成이엇는데 後場은 例休이엇다

財界秘話

換布하는行商

六矣廛에서 獨占으로 商權을 掌握하엿스니 京鄕間物物交易이 안된당. 서울서는 어찌할수업스니까 行商들이 베(布)와 무명(白木)을換布해서 買易을하게된다. 五、六十年前만해도 이行商에 대단하엿다. 江原道는 무명이 업스니까 行商이安邊 通川等地로가서 田間을 通해서 무명과 베를바꾸게 되는데 그때行商들의 苦痛은 여간이아니엇다. 서울行商이 江原道客主집에서 四十日동안 감자밥에 진저리가나서 쌀밥좀 지어달라고 特請을하니까 無限生色을내면서 해주는것이 조(粟)밥이엇다. 어디 이것이 입쌀(白米)밥이냐고 不滿을 말햇더니 『이양반 祭祀에도쓰지못하는 입쌀밥을 어디서 가저오라느냐』고 도리어 단마만나더다한다. 감자죽 감자국수도 어데먹기힘들었다 한다.

베한疋巨利가두둔

이가치 苦生해가면서 베를 換布해가지고와서는 서울로 돌어오지 못하고 水原松房에서 무명베를 사가지고와서 팔고 돌어오지를 하드니 ... 벗(五兩)이면 큰黃소(牛) 한마리를 사러대이라 베한疋에 葉錢三兩(二十文)이면 巨利가되엇다. 베는 무거워서 敢히 돌어오지못하고 挍拔에 와서팔어버리게된다. 그利益이 얼마어나하면 葉錢以兩 려가서 쇠등에한쪽에무명열疋씩실고와서는 亦是白木廛이무서워서 서울로돌어오지못하고 水原松房에서 무명팔고 소팔고歸家하엿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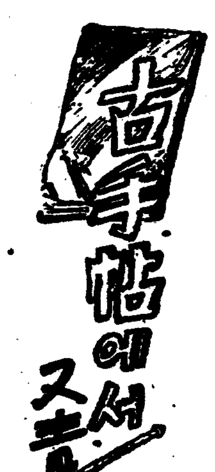
貪官汚吏의標本

○○官○○課長李某는 權勢가 어쩌나세이고 먹을것을 민던지 自己地位를 利用해서 民間의租界가말이아니엇슬뿐아니라 나라에害를 끼친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엇다. 그한例를들면 所有者들에 對하여 物件을 上納하라고해서 『파스』는시키어노코 저의집으로내다가 다시물어 팔어먹기가일수당. 이러케어수룩하게 나라를 좀먹어 致富하엿스니 그財産이 累全하람을보면 구역이난당.

城邊두리客主

城안에는 六矣廛이 獨占營業을 하엿거니와 城邊두리 南大門, 西大門밧게 物産委托販賣하는 客主營業도 제법 繁昌햇당. 門안 大官집에 드나들면서 벼슬부스러기나 어더하려고 가진醜態한일이 만헛스나 그래도 고들의功도 업지안헛당. 韓末亡命客들의 宿所는 大槪 이客主이엇다한다.

前에 舉校한倘客 세웟기로 廢罪될理는 萬無일게다. 그며 後孫에福이잇스리오 生아들은 미친당.



三國志 (81)

韓 龍 雲 譯

熊 超 畵

孫策의厥起 (三)

장소가 말하되 『고게 남쪽은 유유의 진영이니 만일 복병이잇스면 어찌 하리오』 『귀신이 나를도오니 무엇이두려우리오』 하고 갑옷을입고 창을가지고 말께올라 정보, 황개, 한당, 장흠, 주태등과 함께 열세사람이 진에나서 고게에올라 사당에 이르러 향을 불태우고 절하기를 마치매 손책이 꾸러안저 비되 『만일 제가 능히 강동에서 큰업을 이루고 다시 죽은아비의 터를 이르키면 마땅히 사당을 중수하고 사시로 제사를 지내리다』 빌기를 마치매 사당에나와 말을타고 여러장수를 도라보며 『내가 고게를지나 유유의 진영을 탐지하고자 하노란』 여러장수가 다 불가하다 하되 손책이 듯지아니하고 가치 고개위에 올라 남으로 바라보니 새 수풀새이에 엎찌기 매복한 적은군사가 잇다가 곳 유유에게 보하니 유유가 말하되

『이는 반드시 손책이 우리를 유인하는 계교니 가히쫏지못하리라』 태사자가 뛰어나오며 『이때에 손책을 잡지아니하면 다시 어느때를 기다리리오』 하며 유유의 장령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말을타고 나서며 크게부르되 『담력이 잇는자면 나를 따르라』 모든장수가 움지기지 아니하되 오직 한 적은장수가 나서며 『태사자는 참 사나운 장수다 내가 도으리라』 하고 말을채처 가치가니 여러장수가 다 우섯다. 손책이 한참보다가 바야흐로 말을 물리려 정히 고개를 지날새 홀연히 드르니 고개위에서 『손책은 다라나지말라』 하는지라 머리를 돌리어 보니 두필말이 뛰어서 고개를 나려오는지라 손책이 열두장수를 고개어 래에 세우고 스스로 말을 고개어 더니 태사자가 크게 부르지되 『어떤것이 손책이뇨』 손책이 말하되 『너는 누구뇨』 『나는 동래 태사자라 특별히 손책이를 잡으러 왓노라』 『내가 손책이니 너의 두사람 이 일제히와서 나하나를 당하라 내가 만일 너를 두려하지안나니 내가 손책이가 아니란』 태사자가 말하되

『너의들이 다 일제히 오더래도 나도 또한 두려하지 안는다』 하고 창을비키고 말을노아 손책을 취하니 손책이 창을 들고 마저서 두할이 서로 다라나 싸우니 여러 오십합을 싸워도 승부가 나지 아니하매 정보등이 가만히 칭찬하여 마지안는 태사자가 손책의 창법이 조금도 어지럽지 안는것을 보고 거짓 패하여 손책을 유인하여 쫏치오게하매 태사자가 오던길로 고개에 오르지 아니하고 뒤로 지나자니 손책이 쫏차가며 크게부르되 『다라나는것은 조흔놈이 아니라』 태사자가 스스로 헤아리되 『저쪽에는 열두사람이 따르고 나는 다만 하나인즉 손책을 사로 잡더래도 여러사람에게 빼앗길것이니 조금더 유인하야서 서로 찾지 못하는 곳에 서 손을 나리리라』 하고 싸우다 다라나다 하니 손책이 어찌 노아보내리오 쪼처서 평평한 내가에 이르매 태사자가 도라서서 또 싸와 오십합에 이르러 손책이 한창을 찔러 태사자의 창자루를 잡고 태사자도 또한 손책의 창을 잡아 [illegible]